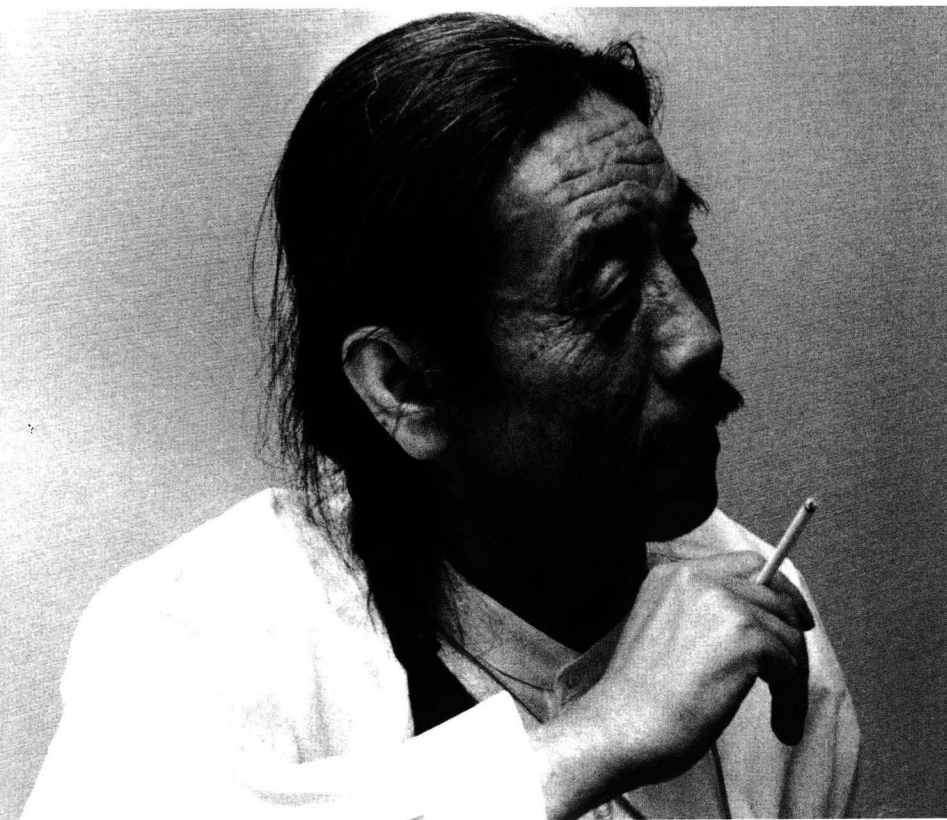


달려라 썩썩, 춘천의 '3대 수' 중 한 '수'가 던지는 타조들을 위한 내공일기

《날다 타조》이외수 지음 | 리즈앤북 | 248쪽 | 값 9,000원



이외수(57)는 늙지 않는 작가다. 명주잠 자리 날개처럼 투명하고도 섬세한 그의 감수성이, 그것으로 씌어진 아름다운 문장들이 여전히 시들지 않았음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피이쩍은 저 문장의 진의는 그가 지금까지 낸 책의 표지나 날개를 보면 명백해진다. 《겨울나기》(1980)와 《장수하늘소》(1981)에 담긴 그의 모습은 지금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다. 봉두난발의 머리 모양새며 군살 하나 붙지 않은, 빠르게 흘러내린 하관은 여전하다. 한 세월 잘도 흘렀는데 달라진 게 없더니 그리 먼지를 건다면 한결 웅숭깊어진 시선이 달라졌다고 한 마디쯤 건네줄 수는 있겠다.

막국수, 호수와 더불어 춘천의 3대 '수'로 꼽히는 이외수가 신작 에세이 《날다 타조》를 내놓았다. 사색의 깊이가 말해

무엇하겠는가마는, 이번 신작 에세이를 통해서 한결 걸관진 입담을 자랑하고 있다. "안데르센은 네덜란드 출신의 축구 선수고 합숙소에서 오리 새끼 한 마리를 애완용으로 키우고 있으며 그 때문에 다른 선수들로부터 왕따를 당하고 있다는 기사를 신문에서 읽었노라고 짹, 박 터지게 우기는 분이 계신다면 역시 어디를 가시든 왕따를 당할 소지가 다분하신 분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다 하겠다." '왕따로 고민하는 그대에게'의 한 대목이다. 해학 넘치는 재담과 그 못잡은 제목을 보며 짐작했겠지만, 《날다 타조》는 세상에 절망하고 아파하는 사람들을 위한 치유의 '약'이다.

"타조는 평균 시속 50킬로미터로 달리지만, 위기에 처했을 때는 순간 속도가 80킬로미터를 넘습니다. 그야말로 '썩썩'

입니다. 힘들고 외로운 세상살이를 가진 사람들 역시 무릎과 날개를 꺾지 않고, 타조처럼 하늘이 아니라 지상을 날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타조를 빌려 봤습니다. 나도 달리고 당신도 달려야 대한민국도 '썩썩' 달려나갈 수 있습니다."

역시 이외수다. 날개가 있어도 날지 못하는 타조의 비애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도 더 힘차게 달릴 수 있는 타조니 '썩썩' 달려보라는 소리다. 애초부터 당신은 그렇게 달릴 수 있는 타조였다는 것이다. 잠언의 형식을 취한 글은 여타의 잠언처럼 관념적이거나 몽상적이지 않다. 육포를 씹듯 한 문장을 입 속에서 우물거리고 있으면 글맛이 진하게 배어난다. 왜 그런가 물어보니 "그게 모두 내 얘기"라서 그렇단다. 진저리나는 세월이 오래고 보니 그동안 쌓인 내공을 쏟는 일은 어렵지 않았단다. 백수였으며, 왕따였으며, 시힘으로 시달렸으며, 돈을 못 벌었으며, 시대에 뒤떨어졌으며, 더군다나 못생기기까지 해서 세상에 중주먹을 무자비하게 들이댄 위인이 이외수다. 책의 소재목을 일일이 더 열거할 일도 없다. 종합선물세트로 절망을 완벽하게 끌어안고 산 그만한 이도 없기 때문이다. 한 시절 두런두런 정겨운 시절은 그에게 차라리 사치였고, 시절이 정겨울라치면 손사래를 쳐 휘이, 내 쫓기도 여러 번이었다.

"겁나게 달려 지상을 날아보지 못한 타조만이 그런 타조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전엔 그만도 못했으니 타조라 부르기도 황송합니다. 춘천 명동 전원다방 앞

...“예술은 예술가 혹은 지식인의 전유물이 아닙니다.....지식의 주도권을 갖고 있는 사람을 따져보면 10만이 안돼요....단지 그 사람을 위해 쓸 것인가,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에서 하루 20원을 구걸하던 때가 있었어요. 하루는 네 알의 감자를, 하루는 번데기를 사먹으며 연명했지요. 목숨 붙이려면 동물성 식물성 골고루 섭취해야겠다 싶었거든요. 그도 안 되면 난동부리기를 일삼았지요. 구류라도 살면 세 끼 식사는 해결할 수 있었으니까. 베스트셀러 작가라 돈도 잘 벌었으려니 하겠지만 글썄요, 오래 전 얘기긴 합니다만, 제 책을 들고 있는 사람은 한 사람 건너 한 사람인데 출판사 쪽에서는 1만 부밖에 못 팔았다고 죽는 소릴 하니 도리 없었죠. 춘천교대를 지원해서 보기 좋게 낙방도 해보았습니다. 그렇게 사니 열등감은 또 없겠다구요? 제가 외모가 됩니까, 재력이 됩니까, 보아서도 아시겠지만 잘난 구석이 하나 없잖습니까? 그래도 열등감을 이겨내는 게 그중 가장 쉬웠습니다. 영화 <주유소 습격사건>에서 ‘한 놈만 쫓다’라는 유오성 정신 있잖습니까. 누구에게나 한 가지 장점이란 꼭 있기 마련인데, 한 놈만 조져버리겠다는 정신으로 문학을 조져버리리라 생각했지요.”

줄줄이 두름으로 깨어 나오는 남루다. 그가 담배를 꺼내 물지 않았다면, 그사이 화제를 바꾸지 않았다면 온 밤을 꼬박 새우고도 모자랐을 테다. 그런 시절을 가볍게 털어버릴 수 있었던 이유를 되물으니 “자학하면 남는 게 없어서”, 단 한 마디로 끝이다. 남루는 길지만 성찰은 짧고 명징

하다. 《날다 타조》의 가치는 바로 여기에 있다. 오랜 남루 끝에 얻은 짧고 명징한 성찰을 독자를 위해 친절하고도 넉넉히 풀어놓고 있는 것이다. 그쯤 되면 “못난 당신이 그렇게 말하니 힘차게 달려 날아보겠다” 고개 주억거릴 수밖에 없다. 그러나 책에서 한 대목 의심해 볼 부분이 있다. ‘시대에 뒤떨어진 그대에게’ 라는 부분이다. 그의 컴퓨터 실력은 범인의 경지를 넘어선 지 이미 오래고, 홈페이지를 꾸려 ‘번개’를 통해 독자를 만나는 일이 종종이며, 즐겨 그리던 그림을 매킨토시로 옮겨 작업을 겸하고 있다. 황신혜 밴드 김형태에게 작곡까지 배워 《날다 타조》의 메인음악을 만들었다고 들려주기까지 하는데, 알에서 깨어나 두리번거리고, 종종걸음으로 걷다 마침내 무서운 속도로 달려나가는 풍경이 그려지니 탄복하고 감복할 노릇이다. 작품으로 옮겨가 보아도 그러하다. 최근 신작까지 세상을 짚어내는 감각이 여전 시대를 앞서고 있으니, 이 부분만큼은 의혹의 눈조리로 보기에 충분하다.

“예술은 예술가 혹은 지식인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지식의 주도권을 갖고 있는 사람을 따져보면 10만이 안돼요. 단지 그 사람을 위해 쓸 것인가,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예술의 기능 중 중요한 기능의 하나로 ‘위안’을 들 수 있는데, 고통받고 절망하는 사람들을 위해

쓰는 일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무명생활로 10여 년 간을 처절하게 외로웠습니다. 그 시절 제 책을 읽어주는 독자가 목숨처럼 소중하고 또 고마웠지요. 20년 동안 독자가 줄어들지 않고 꾸준히 사랑받고 있는데 기적이라 생각합니다. 떳떳한 글밥만을 먹고 오래도록 독자와 함께 하고 싶습니다. 시대가 수상하니만큼 힘없는 이들을 위무도 책임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시간은 잘도 흘러 어느덧 세밑이다. 새로운 한 해의 시작에서 《날다 타조》는 이외수가 “옛다, 한 수 받아라” 일갈하고 내놓는 내공 가득한 책이다. 책을 읽고 어느덧 ‘쌩쌩’ 길 위를 달리는 당신을 발견했다면, 이외수가 머물고 있는 춘천 ‘격외선당格外仙堂’을 찾아가도 좋다. 그곳에 도착하게 된다면 기인도 도인도 아닌, 털털한 인간 이외수가 당신을 기꺼이 맞아 줄 것이다. 참고로 격외선당이란 ‘격식 밖에서 노니는 신선의 집’이란 뜻이다. 신선 놀음에 도끼자루 썩는 줄 모른다 했으니, 온 밤 지샬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먹고 발걸음을 떼는 것이 좋다. ☞

취재 박용두 기자·사진 김호